

“종이책보다 전자책”... 대학생, ICT 시대에 발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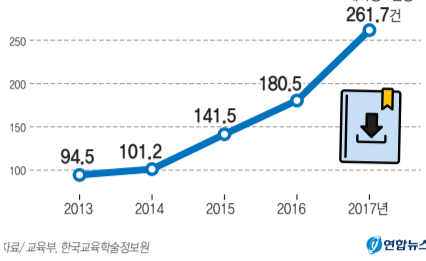
전자자료 이용건수 177% 증가 종이책 대출 최근 4년 연속 감소 “전자저널 등 교육 향상에 기여해야”

‘책 읽는 대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맞게 대학 도서관에서 ‘종이책’ 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전자책(e북)’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종이책은 덜 보는 대신 전자책 등 전자자료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종이책’ 대출은 최근 4년 연속 감소한 반면 전자자료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1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국 423개 대학의 소장도서와 이용현황, 자료 구입비 등에 관한 ‘2017년 대학도서관 통

대학도서관 전자책 이용 추이
도서관이 설치된 전국 423개 대학 대상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 조사



자료/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 20.9권, 연세대 20권, 이화여대 18.5권, 고려대 15.9권, 부산대 12.0권, 동국대 11.9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 대출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문학분야 책 비중이 22.0%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19.5%, 기술과학 12.9%, 예술 8.9% 순이었다. 전문대는 문학 29.6%, 기술과학 19.5%, 사회과학 14.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전자자료 이용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2013년 94.5건에서 2017년 261.7건으로 177% 증가했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전자저널, 전자책(e-Book) 등 전자자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재학생 1명이 1년에 대출하는 종이책은 2017년을 기준으로 평균 6.5권으로 4년 전인 2013년 8.7권보다 감소했다.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서울대가 24.9권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평균 10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학은 11만8000원이었고, 전문대학은 2만8000원이었다.

자료구입비의 유형을 보면 전자자료가 65.5%로 가장 많았고, 도서자료 25.9%, 연속간행물 7.6% 순으로, 전자자료 구입 비율은 2013년 57.9%에서 2017년 65.5%로 매년 증가했다.

대학 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64권으로 4년 전인 2013년 대비 10권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은 72권, 전문대학은 33권이였다.

대학별 소장도서는 서울대가 502만 8000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 336만7000권, 고려대 335만8000권, 연세

대 325만7000권 순이었고,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는 서울대가 176권, 경북대 111권, 고려대 90권, 홍익대 85권 순이었다.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2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문학 14.3%, 기술과학 13.2% 순. 전문대학은 문학도서 18.6%, 사회과학 18.5%, 기술과학 16.4% 순으로 집계됐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도서관이 최근 학생들의 자료 이용 추세를 반영해 도서와 전자자료 구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전자저널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문대 졸업 軍기술부사관, 학사학위 받는다 직장인 한 달 용돈은 ‘57만7000원’

교육부-국방부 협약으로 인가 ‘2018 e-MU’ 210명 학생 모집

올해부터 전문대를 졸업한 군 기술부사관들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8학년도 전문대학 e-MU (e-Learning Military University)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 평가’ 결과, 2018학년도에 5개 전문대학 7개 모집단위에서 210명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학사를 소지한 기술부사관이 온-오프라인 이수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통해 올해 첫 학사학위를 인가해 학생을 뽑게 됐다.

앞서 지난 2013학년도부터 경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인하공전 항공기계과 등 6개 대학 8개 학과에서 기술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e-MU 전문학사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1174명이 전문학사를 받았고, 현재 재학생 1059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4년제 학사학위를



e-MU 오프라인 실습수업 모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기계공학과, 대덕대 총포광학과, 상지영서대 국방정보통신공학과,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과·헬기정비공학과, 전남대 특수장비공학과·특수통신공학과 등 5개 대학 7개 학과로 각 학과별 30명 정원이다.

현직 기술부사관들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50%까지 허용되고, 신입생 전원에게 교육용 노트북 지급, 등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

된다.

전문대교협 황보는 사무총장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지금까지 약 5만 여명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했다”며 “이번 e-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개설을 통해 군 인력 맞춤형 일·학습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전문대교협은 기술부사관 외에도 복합인턴사,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심화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 기자

직장인의 한 달 용돈이 10년 전보다 26.8%포인트가 오른 57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한 달 평균 용돈’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용돈은 57만7000원으로 10년 전 45만5000원보다 12만2000원(26.8%포인트)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직장인 601명이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2.8%였고 이후 매해 한 자리대 상승이 이어져 도합 20% 가량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직장인 용돈 증가 추세 역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로 늘어났다.

미혼 응답자는 평균 72만5000원을, 기혼 응답자는 43만8000원을 사용한다고 답해 미혼이 기혼보다 39% 이상 더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은 54만6000원, 기혼은 34만2000원을 월 평균 소비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의 경우 한 달 평균 용돈을 53만5000원 가량 소비하는데 반해 여성은 62만2000원이라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8만7000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엔 남녀가 각각 46만원, 43만6000원씩 지출한다고 나와 남성의 지출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용돈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 또는 문화생활(14.7%) ▲교통비 및 유류비(14.6%) ▲유형비(12.6%) ▲의류, 화장품 등 외모관리(12.5%) ▲교육비, 자기개발비(3.4%) ▲부채, 대출 상환(2.6%) 순이었다.

10년 전 지출항목 1위는 ‘유형비(28.2%)’였으나, 당시 2순위 지출 항목으로 지목된 ‘식비’(25.7%)의 지출 비중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본다면, 직장인들이 유형비 지출 소비하는 금액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은 용돈을 주로 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만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6%에 불과했다.

/정연우 인턴기자 yw964@

선거연령 19세 → 18세 제안 “환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만 18세 선거권 하향,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 18세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 수업 등을 강조하는 학생시민 교육지원 등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서울사회적경제 신년회’에 참석해 건배제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 18세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 수업 등을 강조하는 학생시민 교육지원 등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홍 총장 취임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사진)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5일 서울 강서캠퍼스에서 열린 제8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온라인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거 정부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나치게 취약했다”면서 “향후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원격대학으로 현재 24개 학과에 1만3000여명의 재학생이 있다.



/한용수 기자



/서울대학교

서울대 공과대학 ‘국제 창업경진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한국-타자니아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이하 iTEC) 주최로 ‘국제 SMART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iTEC는 서울대가 운영하고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ODA(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복지증진을 원조) 사업으로 안성훈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주도로 타자니아의 에너지·물·농업·보건·교육·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서울대 iTEC, NM-AIST, 대한산업기술지원단(UNITEF), e3임과위가 주최했다. 아프리카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83개의 학생팀과 스

타트업 기업팀이 참여했다. 본선에 오른 24개 팀은 최종 발표를 통해 창업 내용에 대한 기술, 사회공헌, 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받았다.

대상은 식물에 기반한 병충해 제거방법을 제안한 NM-AIST·아루사 회계대학팀이 수상했다. 부상으로 미화 천 달러와 미국 워싱턴주립대(WSU) 주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 전액이 주어졌다.

2등상은 선진국의 노인들이 개도국의 어린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캐나다 워털루 대학팀이 수상했다.

/정연우 인턴기자